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

일상에 빠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나아가며
억눌리는 자에게 헌신적이며
억누르는 자에게 용감하며
스스로에게 비판적이며

동지에 대한 비판도 망설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치열히
순간순간을 불꽃처럼 강렬히 여기며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진보하며

그 성실성에 있어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되
새로운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며

진실한 용기로 늘 뜨겁고
언제나 타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바꾸어내며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을 늘 기억하며
내 작은 힘이 타인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배려를 잊지 말고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역사와 함께 흐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제6대 노동조합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경림 -

민주노조! 정책노조! 연대노조! 투쟁노조!

기호 1 번



노조위원장

후보 도형남

노조사무국장

후보 김선범

No.1

실.천.공.약

출마의 변

사랑하는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조합원동지 여러분!
제6대 노조집행부 선거에 출마한 도형남, 김선범입니다.

지난 제5대 노동조합 3년을 돌아보면 대전도시공사 창사이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자체사옥을 확보하고 관심과 고민속에 정년연장을 실현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공사의 내외부 여건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공기업 평가 보고서"는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 축소를 위한 입법의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끊임없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은 우리공사의 개발·레저·환경사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의 변수들은 직간접으로 우리공사의 미래와 조합원동지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 도형남과 김선범은 이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합원동지들과 일치단결된 대오를 형성하여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제6대 노동조합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첫째, 외부환경 변화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여 조합원동지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조합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열정을 다하는 노조가 되겠습니다.

사측과 상시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인사, 조직, 사업 등에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공사발전을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동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합원이 진정한 우리공사의 주인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근본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건강한 조직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노동조합의 건강, 공사조직의 건강, 나아가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결국 우리 조직원의 발전되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단결!! 투쟁!!

노조위원장 후보 도형남 사무국장 후보 김선범



반드시 정취하겠습니다.



직급정원 통합

- 4급~7급의 각 직급정원을 통합하여 근속승진 이외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조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직제개편을 통한 직급상향

- 상위 직급을 확대를 통해 실,처,본부장 1급 / 2급제 팀장제 실현



호봉확대

- 정년연장으로 인한 호봉확대 필요
- 정부의 공기업의 임금정책의 한계로 인해 호봉상승분 임금 필요



조합원 범위확대

- 2급 팀장제 실현을 통한 3급 조직원 조합원 범위포함



베스트 보직자 선발

- 보직자중 리더십, 청렴도, 업무능력 등을 조합원의 평가를 통해 우수자를 선발하여 조합포상
- 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리더와 조직원간 제대로된 소통을 위한 제도로 활용



임원평가 실시

- 조직원이 정기적으로 임원진의 비전과 활동평가
- 3년의 제한된 임기동안 정치적 낙하산 자리가 아닌 우리 공사조직의 일원임을 내부적 확인
- 임원과의 현실적 소통관계를 극복하고 진정성 있는 조직원의 바램을 전달하는 제도로 정착



해외연수 기회확대

- 각종 정책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기회 확대
- 장단기 교육시에도 해외연수 기회 창출



대전시 노정포럼 개최

- 대전시 산하기관 노조와 연대하여 노정포럼 창설
- 사업, 예산, 조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과 정기적 소통경로를 확보하여 우리공사의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장 마련

